



쇼트트랙 꿈나무들의 질주

28일 강원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제24회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가 열려 여자 초등부 1천500m에 출전한 선수들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보배 이틀째 선두

4언더...2위와 2타차

신지애 2오버 '주춤'

JLPGA 리코컵 챔피언십 2R

송보배(22·슈페리어)가 일본여자프로골프 시즌 마지막 대회이자 메이저대회인 리코컵 투어챔피언십에서 이틀 내리 선두를 달렸다.

지난 3월 JLPGA 투어 개막전인 다이키 오키드 레이디스를 제패했고 상급랭킹 13위에 올라 있는 송보배는 28일 미야자키 미야자키골프장(파72·6천442야드)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1언더와 71타를 쳐 중간합계 4언더와 140타로 순위표 맨 윗 자리를 지켰다.

1라운드에서 유일할 60대 타수(69타)를 적어냈던 송보배는 이날도 버디 2개와 보

기 1개를 묶어 이틀 연속 언더파 행진을 벌인 끝에 2위 그룹에 2타차 간격을 유지했다.

전미정(26·진로)도 1타를 줄여 공동 2위(2언더와 142타)에 올라 시즌 3승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사상 첫 한국인 상급왕이 되려는 이지희(29·진로)는 2타를 잃어 공동 8위(1오버와 145타)로 밀려났다.

상급왕 경쟁자 고가 미호(일본)이 1타를 줄이며 공동 6위(이븐과 144타)로 올라선 것도 이지희에게 부담이 됐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에 도전장을 낸 '골프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도 미국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온 데 따른 피로 탓인지 3오버와 75타로 부진, 공동 11위(2오버와 146타)로 내려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아시아' vs '인터내셔널' 첫날 무승부

LPGA 렉서스컵

아시아팀과 인터내셔널팀이 대결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4회 렉서스컵대회 첫날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선수들이 주축이 된 아시아팀은 28일 싱가포르 아일랜드 골프장(파71·6천345야드)에서 한계의 공을 번갈아 치는 포섬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3승3패(승점 3)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특히 장정(28·기업은행)은 캔디 쿵(대만)과 짝을 이뤄 인터내셔널팀의 원투 펀치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안젤라 스텐퍼드(미국)조에 2홀을 남기고 3홀을 앞서는 완승을 거두며 소중한 승점을 추가했다.

대회 이틀째인 29일에는 각자 플레이를 해 가장 좋은 성적을 적어내는 포볼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이형택 4강 진출

ATP 챌린저 대회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 단식 4강에 올랐다. 세계랭킹 118위 이형택은 28일 일본 도요타에서 열린 단식 월드챌린저 단식 3회전에서 브렌던 에반스(183위·미국)를 2-0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총상금 3만5천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서 4강에 올라 랭킹 포인트 24점을 확보한 이형택은 세바스티앙 드 쇼나(258위·프랑스)와 29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지난 주 요코하마에서 열린 게이오챌린저에서 우승했던 이형택은 1월 호주오픈 단식 본선 자동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 조작 중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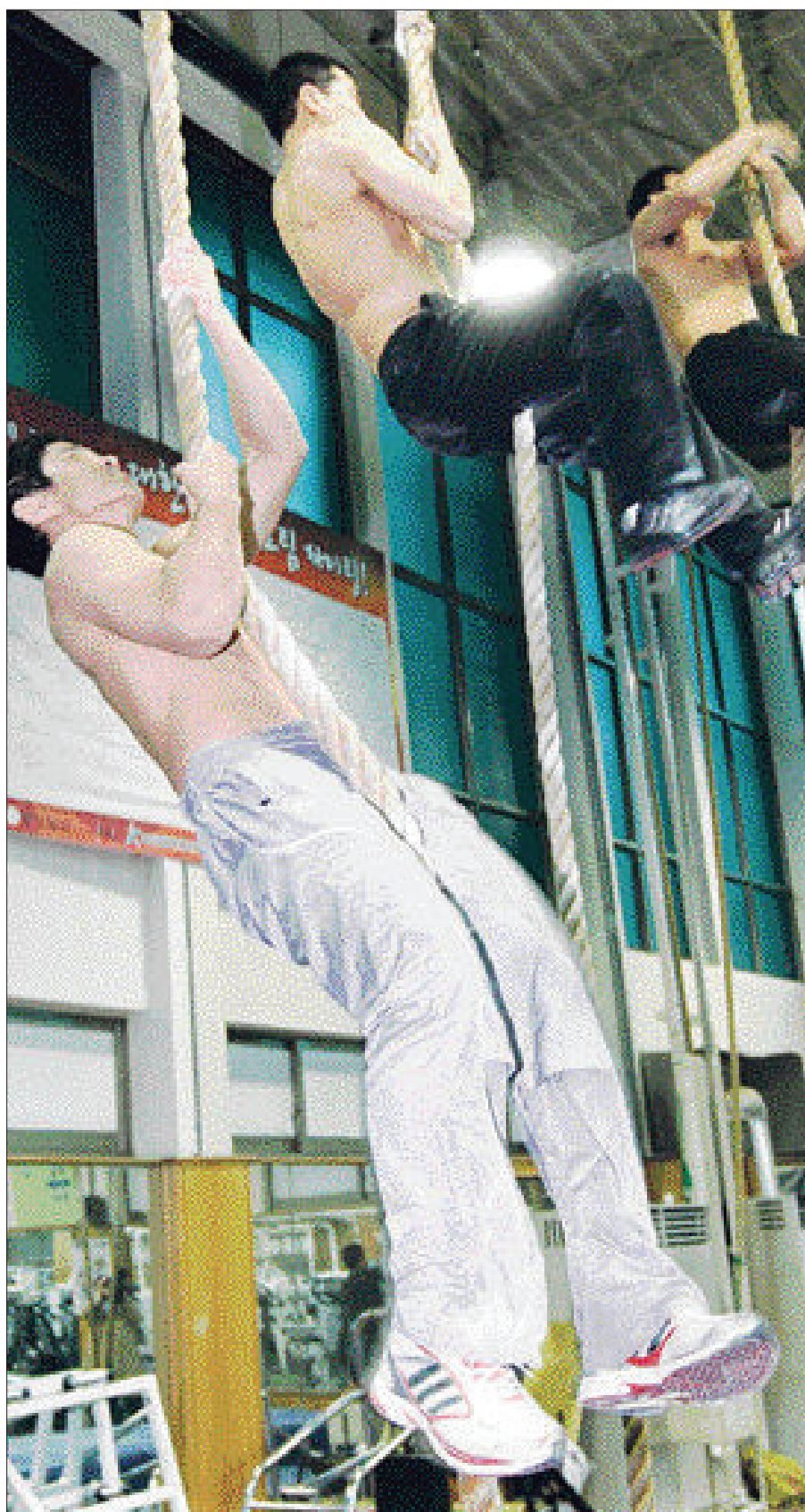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가 초유의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세워 일부는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아마추어리그인 K3리그와 내셔널리그 선수까지 가담했던 승부조작에 대한 경향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따르면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부조작 연루자들은 상벌위에서 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제명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림픽 금' 최민호 줄타기 맹훈

태릉선수촌에서 줄타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60kg급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왼쪽)가 28일

/연합뉴스



29일(토)

▲NBA <피닉스 : 마이애미>(10:00·MBCESP)

▲NHL <피츠버그 : 버팔로>(09:20·SBS스포츠)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10:00·KBSN SPORTS)

▲PGA 오메가 미션힐스 월드컵 3R(12:30·SBS스포츠)

30·SBS스포츠

▲렉서스컵 2R(13:00·SBS골프)

▲대학장사씨를 삼척한마당 장사급 단체전(13:00·MBCESP)

▲V리그 <LG손보 : 현대캐피탈>(14:40, <도로공사 : 흥국생명>(16:40·KBSN SPORTS)

▲프로농구 <KCC : 삼성>(14:50), <SK : 오리온스>(14:45·Xports), <KT&G : 동부>(15:00·MBCESP), <금호생명 : 신세계>(16:50·SBS스포츠)

▲자넷리 초청당구 (19:00·MBCESP)



SK 김성근 감독 재계약

3년간 20억원 역대 최고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김성근(66·시진) SK 와이번스 감독이 역대 프로야구 지도자 중 최고 대우를 받게 됐다.

SK 구단은 28일 김성근 감독과 계약금 8억원, 연봉 4억원 등 3년간 총 20억원에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성근 감독의 몸값은 2006년 11월 현대 유니콘스에서 LG 트윈스로 사령탑을 옮겼던 김재박 감독이 기록한 3년간 15억 5천만원에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의 코치를 지내다 2007시즌부터 SK 지휘봉을 잡은 김감독은 강한 훈련과 철저한 분석력으로 팀 전력을 강화시켜 부인 첫 해 SK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올해에도 페넌트 레이스를 주도하며 2년 연속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SK는 올시즌 83승 43패로 페넌트레이스 126경기 체제에서 역대 최다승을 올리는 등 김감독이 맡은 2년동안 156승 91패 5무, 승률 0.632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아시아시리즈를 마친 뒤 짧은

선수들을 이끌고 일본 고지현으로 이동해 마무리훈련 중인 김성근 감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구단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선수들이 더 많이 키워내 완전한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밝힌 뒤 "SK라는 새로운 명문 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야구 팬들이 SK 플레이에 매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땀을 흘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 정규리그 막판 일찌감치 김감독과 최고액으로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발표했던 SK는 전날 신영철 사장과 민경삼 운영본부장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도장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강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팀 리빌딩과 동시에 한국시리즈 3연패를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감독은 30일 귀국해 12월1일 열리는 8개구단 감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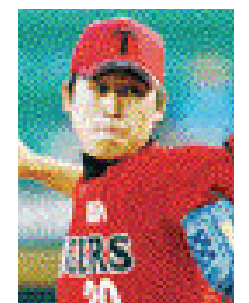
/연합뉴스

KIA 윤석민 '페어 플레이상'

KBO 상벌위 선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올해 프로야구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 윤석민(KIA·사진)을 선정했다.

경기와 관중에 대한 태도, 심판과 기록원 편정에 승복하는 자세 등을 고려해 주는 이상은 2001년 제정된 것으로, 홍성흔(전 두산)과 강민호(롯데)



가 윤석민과 함께 후보로 뽑혔다.

윤석민은 12월11일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장에서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를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재운 목포과학대 교수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장

이재운(45·사진) 목포과학대학 사회체육과 학과장이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장에 선임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27일 이사회결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재운 목포과학대학 사회체육과 학과장을 심판위원장에 선임했다.



현 전남배구협회 부회장 겸 배구연맹 심판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학과장은 "전남배구 발전과 해외 교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